

“日本の 새로운 居住環境”

朴胤成

(高麗大学校 教授)

1) 居住環境 調査를 위한 紀行 :

1979년 7월 중순경 더위가 본격적으로 더해가는 여름의 季節에, 東京의 무더위는 서울의 여름의 더위와는 아주 다른 견디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더위였던 것이다.

이 무렵 필자는 동경에 滞在중 일본의 早稲田大学 교수진을 중심으로하는 “日本の 새로운 居住環境”에 대한 調査研究를 課題로하는 연구팀에 가담하게 되어서 일본의 大阪을 중심으로하는 지구에 새롭게 개발하여가는 住居団地의 개발상황을 직접 돌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여기에서 大阪지구에 속하는 泉北New town과 奈良부근에 있는 平城New town을 現地訪問한 내용을 몇자 紀行文식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紹介하여보고져 하는 것이다.

이 조사연구팀의 구성을 보면

건축·도시계획..... 6명

사회학·경제학..... 5명

으로서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이 되었고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교수 밑에 1~2명 정도의 보조연구원이 따르는 大家族의 구성이었던 것이다.

필자가 본연구팀에 參與하게 된것은 早稲田大学の 戸沼幸市教授의 적극적인 후원과 吉阪隆正教授의 호의에 의한것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필자가 많은 연구비를 축내게하고 이렇다할 成果도 못올리고 歸國하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전에 몇차례에 걸친 會晤를 가졌었으며, 이때마다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의 進行상황과 연구내용에 대한 토의를 가졌던 것이다. 현장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은 출발 2개월전에 이미 출발일자와 조사진행에 대한 계획내용 그리고 방향성 등을 확정지었던 것이다.

조사를 위한 연구에 참가할 사람들은 7월16일 하오 7시에 大阪驛에서 가까운 新阪急호텔의 로비에서 集合을 하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기회에 京都의 여기저기를 求景하기로 작정을하고 이날 아침 일찍이 早稲田大学の 宿舍를 떠나 東京驛에가서 新幹線의 電鉄車를 타고 京都로 向하였던 것이다.

이 전철차는 동경의 빌딩群을 순식간에 지나쳐갔고, 郊外의 주택군도 지나, 빨리도 시골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의 시골風景은 여기서 찾아볼수가 없었던 것이다. 京都가까이의 시골風景을 빼놓고는 車窓을 통한 시골風景은 시골아닌 오로지 住守群만이 힘찬 勢力을 갖고 뻗어가서 논이나 밭의 形狀은 이 住宅群사이에서 萎縮의으로 되어 언제 宅地로 變할지 모르는 마치 敗北軍과 같은 비참한꼴로 남아있는 실정인 것이다. 實로 동경에서 京都市사이는 線狀의 巨大都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國土가 서울에서 釜山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차창을 통하여 논밭과 林野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住宅群만이 斷續的으로 계속되어 있다고 상상을 할때 이것이 과연 좋은 未來가 될수 있을것인가 하는 疑心만이 筆者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마는 것이었다.

京都에 도착하여 필자는 정오이전이지만 빨리 點心을 들고 京都市内の 觀光버스에 몸을 委託하고 京都의 名所를 관광버스案内員의 얘기를 들으면서 옛 遺跡들을 구경을 하였다. 京都市内는 高層建物이 별로 없고 옛 建物과 現代의인 建物이 混合이 잘된 기본좋은 都市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저녁에 京都에서 国鉄로 大阪으로 向하였던 것이다. 京都와 大阪사이는 工場建築과 住宅群으로 -packed 있어서 숨쉴틈도없는 여유없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地圖上으로는 大阪과 京都와의 사이의 行政인 区分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나 外觀上으로나 大阪과 京都는 한덩어리의 커다란 巨大都市인 것이었다.

하오 7시경 大阪에 도착하여, 금방 新阪急호텔을 찾을수 있었으며 徒歩로 거리구경을 하면서 新阪急호텔로비에 들어섰던 것이다. 로비에는 몇명의 一行中の 조사연구원들이 도착하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다.

모두 모여서 연구간사인 寺門氏의 지휘아래 호텔의 投宿計劃의 설명을 듣고 각실에 2인씩 마련이 되어 필자는 吉阪교수와 같은방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방을 정하고 방에 들어서 휴대품을 놓고 나와서 로비에 다시 모여서 一行은 호텔부근의 中国料理점에가서 저녁을 들면서 談笑할 시간을 가졌으며, 夕食后 다시 몇명이 모여서 茶房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난후에 호텔에서 一泊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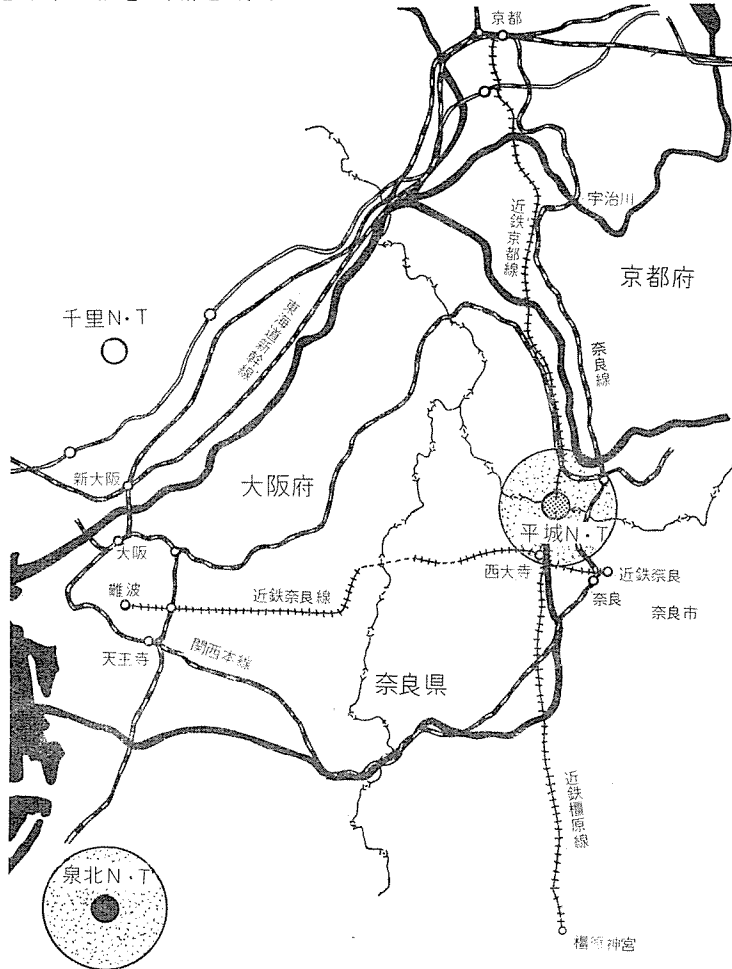


그림-1. 泉北 및 平城 New town의 위치.

2) 泉北New town :

다음날 아침은 비가 약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침을 호텔에서 들고 준비된 車輛으로 一行은 大阪府의 청사로 向하였던것이다. 大阪府청사의 企業局의 會議室에서 泉北New town計劃에 대한 설명을 들은것이다. 이 會議室 窓밖에는 우뚝 솟은 大阪城의 遺跡이 裝靚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大阪府의 관계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泉北New town에 관한 計劃에서부터 공사사업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内容을 說明하였던 것이다. 어느듯 點心時間이 되어 大阪府에서 준비시킨 도시락을 들면서 泉北New town에 대한 여러가지의 質問과 대답을 교환하면서 下后 1時경에 준비하여는 마이크로버스便으로 泉北New town으로 向하였던 것이다.

泉北New town은 大阪의 중심부에서 南쪽으로 20km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고, 堺市에서는 10km떨어진곳에 있는 것이다. 이곳은 周圍가 모두 田園地帶로서 既成農村聚落이 산재하여 있으며, 이 泉北New town은 3개의 丘陵으로 구성된 야산으로된 林野를 개간하여 開發한곳으로서 어디까지나 住居環境을 中心으로한 새로운 town인 것이다.

이 泉北New town은 처음부터 計劃의으로 만들어진곳이며, 大阪과 堺市の 都市의 通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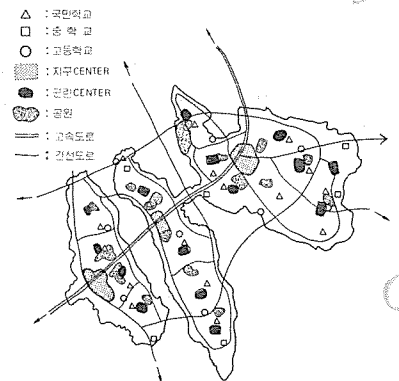


그림-2. 泉北 New town의 計劃圖

人口를 對象으로하여 設定한 住宅團地를 爲主로하여 개발을 한것이 특징인 것이다. 여기의 人口는 18萬名을 수용할 계획이며, 1헥타아르당 평균 130명의 밀도를 갖는 지역계획을 갖는 곳이다. 주택의 공급은 약 5만 3천 5백戶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의 개발事業은 이미 마무리段階에 들어가고 있으며, 入住者들이 13만명이나 이 새로운 Town에서 生活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개발지역에는 幹線道路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지구 Center와 국민학교, 유치원, 近隣公園 등의 공공적인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調和를 갖추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우선 여기에 到着하여, 地區Center가 있는 부근에 공원이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약간 높은곳에 자리잡고 주위를 잘 살필수있는 鉄骨造의 현대적인 감각을 주는 展望塔이 있는곳으로 안내되어, 車에서 내려 이 전망탑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망탑에서 바라본 泉北New town의 印象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住宅環境을 가지고 있는 快適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전망탑을 한바퀴 도는동안 中層의 아파트群과 高層의 아파트群이 서로 調和있게 배치가 된 장관을 볼수가 있었고, 여기저기에 自然的으로 형성된 湖水와 그 주위의 綠化부분의 여유있는 Open Space는 깨끗하고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전망탑을 내려서 여기저기 실지로 답사를 하였으나 내리는 비때문에 걸어서다니면서 충분한 見學을 할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 New town은 3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지구는 다시 細分이 되어서 近隣Center를 중심으로 공원과 학교 그리고 診療所 등의 공공건물이 近接하여있는 한 덩어리의 周圍에는 住宅地가 구성이 되어있고, 이 住宅地도 다시 高層아파트의 高密度部分과 中層아파트部分 그리고 Town house와 獨立住宅의 地域이 計劃的으로 区分이 되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獨立住宅지역을 달리는 車속에서 車窓을 통하여 住宅環境을 본 인상은 주택 그 자체의 건물보다도 地축성을 위한 築台구성이 대형의 自然石을 採取하여 보기 좋게 꾸미고 그위에 담장을 둘러싼 그 形態는 각양각색의 것이나, 여기에서 풍기는것은 누구에게나 威壓感을 주게할 정도의 것이었다. 車속에서 누구인지 “벼락富者의 집들이 아니냐”고 중얼거리는 말을 들을때 필자도 역시 이 豪華한 인상이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수 없는 강한것의 하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一行은 이지구에서 개발時 發掘하여 만든 考古資料館의 展示場을 방문한 것이다. 이 展示場은 公園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綠陰속에서 쉬면서 見學을 할수있게 마련된것은 참으로 特色있는것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埋藏되어있는 遺物들을 工事中에 發掘하여 保存할 수 있게한것은 실로 價値있고 귀중한것임은 더 말할나위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發見은 이 開發工事진행에 많은 차질을 주어 개발속도를 늦추게한것은 이 개발사업에 關係한 사람들에게 준 苦痛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좌우간에 考古資料展示場을 갖는 New town도 特色이 있고 평가할만한것이라고 判斷되는 것이다.

一行은 다시 비가내리는속을 이동하면서 見學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얼마안가서 2층 건물로된 Town house가 있는곳에 도착하여, 徒歩로 이 주위의 生活環境을 들볼수 있었던 것이다. 약간의 경사진 대지위에 세워진 Town house는 그 外觀도 재미있게 꾸미어져 있었고, 各戶마다 approach에 의하여 区切된 현관前部分에는 개인의 취미에 따라서 심어진 花草가 여러가지의 色彩를 가지고 찬란하게 꽃피어 있었던 것이다. 2例의 Town house 사의 空地는 적당한 간격의 共用空間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이 사이에는 절대로 車輛이 못들어오도록되어있고, 中間에는 壇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던가 관상수를 심는다던가 꽃을 심는등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壇과 住宅사이에는 步道가 만들어져있고 여기에서 玄關까지 approach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의 이 環境은 일견 平和로웠고, 아름다우며, 人情이 넘쳐흐르는 近隣關係를 가진 庶民의이고도 對話가 풍부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生活環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格式의이고 豪華하고, 威壓的인 獨立住宅보다는 오히려 보다 人間的이고 따뜻한 溫情이 넘쳐흐르는 居住環境이 바로 이 Town house가 아니겠느냐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이와같은 Town house가 近隣關係가 차게되고, 個人主義的인 立場에서 발생이 빈번히 생기고 서로 協力이 되지 않는다고 할때라면 이 居住環境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상상도 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中層의 아파트와 高層의 아파트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들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있는 變化있고 좋은 景觀을 나타내게하고 있는것은 外觀의으로 볼때 氣分좋은 環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居住하는 高密度의 아파트의 住民들이 意識하



그림-3. 泉北New town의 地區Center 부근

	국민 학교
	녹도 (綠道)
	근린 공원
	근린 센터
	진료소 및 신분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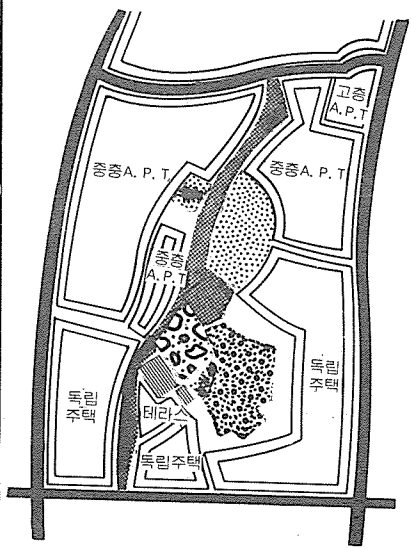


그림-4. 泉北 N. T.의 居住環境 構成.

는 살기좋은 環境에 대한 見解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變하느냐 하는것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 아파트群을 지나친 것이다.

計劃的으로 그리고 合理的으로 시행되고있는 이 New town에서도, 개발計劃圖와 현장견학을 통하여 보아, 어려운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하나 3개의 丘陵위에 계획된 이 New town과 이 3개의 丘陵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있는 既成 農村住居群과 또한 New town 周辺에 散在하여있는 農村住民들과의 合理的인 融合을 어떻게 도모하여 나가느냐는것도 하나의 커다란 課題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住居團地의 一部分을 여기의 地主와 農村住民을 위하여 割愛시킨 團地가 있어서 자체에서 調整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中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그리고 効果적으로 잘 誘導가 된다고 하면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結果가 円滿하게 그리고 調和를 이루는 調整이 미치지 못할때에는 New town과 既成農村的 住居群과의 사이에는 자연히 틈이 생기고 差別的인 격리된 서로 융합이 어렵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이것은 New town의 苦惱의 발생이 된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泉北의 New town은 大阪에 직장 근무지를 가지고 있을때 大阪의 北쪽에 자리잡고있는 千里 New town에 比하면 利便性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千里New town의 경우 新幹線의 電鉄車도 쉬우게 利用이 가능하며, 그리고 国道를 위시하여 각종의 中央으로 연결되는 道路와의 연결성이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泉北은 New town은 交通의 利便이 떨어지고, 특히 大阪←→泉北 New town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地下鉄+鐵道+버스라고 하는 3중의 교통수단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교통비에 있어서도 개인의 負擔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不利한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泉北New town의 計劃당시에는 地区Center를 중심으로 하여, 駐車場의 計劃을 하지 않았던것을 事業도중에 주차장의 必要性에 따라서 駐車場計劃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Master plan이 완성된후에 자동차의 駐車場計劃을 추가로 해결을 해야한다는것도 상당한 노고가 뒤따랐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 見學의 시간도 다 되어서 一行은 빗속을 車便으로 一旦 地区Center에 가서 거기에 있는 茶房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관계자들과 談笑를 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필자는 泉北의 New town을 떠나면서 車속에서 지난 1973年 가을 PARIS의 北方에 자리잡은 Cergy pontoise의 New town을 見學한것이 聯想되었던 것이다. 이 泉北의 New town은 Pontoise New town의 切半밖에 안되는 규모이지만 그 풍기는 냄새가 비슷한 感を 금치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人間들은 누구나 이 世上에 태어나서 보다 나은 生活을 向하여 끊임없는 努力과 情熱을 바치고 있는것은 어느나라의 人們들이건, 어느階層의 人們들이건, 어느時代의 人們들이건간에 不拘하고 共通되게 가지고 있는 念願인 것이다. 이러한 念願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共通된 진실한 人間の 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보다나은 生活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 New town의 人間居住環境이 항상 快適性을 잃지 않고 生活의 利便性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一行은 마이크로버스편으로 難波의 地下 電鉄駅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難波駅에서 奈良행 전철을 타고 下后 7시경 奈良에 도착하여 역전부근에 있는 春日호텔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3) 平城 New town :

18일 아침은 비도 개이고 아직 하늘에는 구름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나 비교적 상쾌한 날씨이었다. 9시경에 마이크로버스편으로 日本住宅公団에서 온 직원들의 안내로 一行은 호텔을 출발한 것이다.

平城New town에 직접向하지 않고 이 車는 奈良부근에 있는 높은 山頂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잘 포장된 道路는 거의 山頂가까이까지 있었고, 올라가는 途中에는 사슴들이 떼를 지면서 먹이를 뜯고 있는 아름답고 自由스러운 放牧光景을 볼수 있었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서 一行은 좀걸어 올라가서 頂上에 도달한 것이다. 정상부분에는 약간의 平地를 가지고 있고 몇그루의 古松이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傾斜진 아래쪽에는 나무의 숲이 우거져있었다. 이 경사지에는 잔디밭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사슴들이와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風景이었다.

頂上에서 한눈으로 奈良의 市内를 내려다 볼수 있었고 또한 그 주위의 멀리까지도 잘 보였었다. 여기에서 平城의 New town의 위치도 쉬우게 발견할수 있었고, 또한 주위환경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立地條件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山



그림-5. 泉北 N. T.의 高層아파트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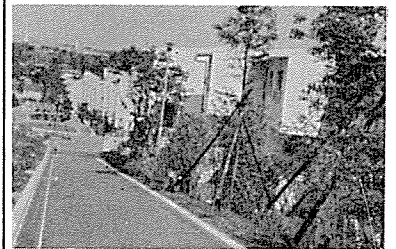


그림-6. 泉北 New town의 Town house

을 내려와 平城New town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平城New town은 大阪市에서 東쪽으로 27km 떨어진곳에 자리잡고 있고, 京都市에서 서쪽으로 29km나 떨어진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奈良市에서는 北西로 5.5km정도 떨어져 있는곳이기도 한 것이다.

일행은 얼마 안있다가 平城New town의 住宅公団의 開發事務所로 간 것이다. 여기 MAIN HALL에는 New town의 計劃圖가 周壁에 걸리어 있었고, 中央部分에는 模型이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돈이 잘되어있는곳으로서 전시실과 會議室을 겸하고 있기도 한곳이었다. 여기에서 住宅公団직원들의 계획에 대한 개요와 개발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던 것이다.

여기 平城New town은 泉北New town에 比하면 그 규모가 작으며, 人口의 수용계획은 7만 3천명이고 면적은 613ha에서 開發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New town은 奈良縣의 奈良市에 속하는 平城지구와 京都市의 相樂郡에 속하여 있는 相樂지구를 聯合한 곳으로서 行政적으로 2분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 New town의 개발사업은 平城지구에서 부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1970~1979) 그리고 相樂지구의 개발사업은 그당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었던 것이다. (1977~1985계획)

이 平城New town도 주택지를 중심으로한 통근人口에 대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town인 것이다. 현재 入住하고있는 人口의 70%가 大阪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행은 회의실에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동안 시간이 흘러서 또한 大阪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住宅公団에서 마련한 점심용 도시락을 회의실에서 들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이다. 점심을 마치고 맑은 날씨의 무더움속을 헤치면서 현장견학을 하였던 것이다. 현장직원의 안내로 좀 높게 자리잡고있는 公園이 있는곳에 도착하여 주위를 바라보면서 현장 설명을 들었던 것이다. 이 공원은 비교적 넓고 큰 pool장도 갖춘곳이기도 하다.

여기도 역시 丘陵지대를 깎아서 住宅團地化한것을 엿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泉北New town과 같은 고밀도의 고층아파트라던가, 호화로운 독립주택 등은 볼수가 없었으며, 中層의 공단아파트와 비교적 견실한 독립주택을 중심으로 이 New town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中層의 아파트群은 그 景觀이 人間의 마음을 위압할 정도로 큰 건물들은 없었고, 어딘지모르게 여유가 있고 田園의인 情景이 넘쳐흐르는 居住環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률적이고 변화가 없는 中層아파트群은 人間の 감정을 가라앉게하여주는 反面에 人間생활에 活氣를 불어주는 자극성을 볼수가 없는 아쉬움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독립주택의 團地도 泉北New town의 독립주택의 團地와 같이 豪侈한 석축의 풍경도 볼수가 없는, 泉北New town의 독립주택보다 規模가 작고 아주 庶民적인 風景을 볼수 있는 住宅地인 것이었다.

그리고 近隣센터에서 떨어진 住居地域에는 주택과 併用한 店舖가 마련된것도 있었고, 주택지의 모서리부분에는 露店도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다. 計劃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점포의 주택의 併用과 露店에 대하여서는 생각한 일이 없고 오로지 모든 商行為는 지역Center에서 이루어지도록 計劃을 하였다는 말이 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利用을 하여온 店舖併用住宅이 과연 計劃的인 New town에서 住宅과 店舖의 分離가 어떻게 合理的으로 進行시켜야 할것인가도 또한 하나의 해결되어야할 課題이기도 한 것이다. 즉 理想的인 理論과 어려운 現實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일행은 中層아파트群이 있는 一角에 도착하여, 徒歩로 아파트群사이의 居住環境을 견학할수가 있었다. 이 아파트群의 住棟사이에서 만들어진 共用空間에는 人工적으로 만들어진 小川이 잘 정비가되어있었고,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어느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에 熱中하여있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물이 아주 깨끗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餘暇를 즐기기 위하여 곳곳에 共用的 새장을 두어서 서로 먹이를 주며 近隣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談笑를 하는 光景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Community의 성격이 商業中心地에 설정시키는것만이 아닌것도 여기에서 볼수 있는 特長이기도 한 것이었다.

여기에도 야파트群 사이의 野菜장사들의 露店이 펼쳐져있는 光景은 참으로 점포를 主体로하는 近隣센터의 계획의 어려움을 볼수가 있는 것이다.

일행은 이 아파트群사이를 거닐면서 見學을 하고, 또한 장래에 건설되어갈 集合住宅의 Model house를 견학하였던 것이다. 이 Model house의 주택내용은 歐美의 立式生活양식과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방을 주체로하는 좌식생활을 組合한 것으로서 계획이 잘된 평면을



그림-7. 泉北 N. T.의 獨立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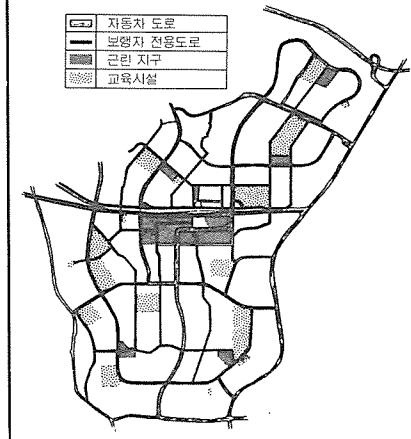


그림-8. 平城 New town의 計劃圖

가진 주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엌의 설비등은 그 계획이 잘되어 있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 平城New town은 泉北New town과는 다른 이미지를 주는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泉北New town이 收入階層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居住環境을 가지고있는데에 反하여, 平城New town은 Simple한 平準化되어있는 느낌을 갖게하는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는것이 있다.

4) 日本의 居住環境研究와 住宅問題

日本에서 새로운 居住環境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居住環境을 정확하게 評價할수있는 因子들을 추려서 調査하고 分析을 통하여 그 方向性을 찾고있는것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住宅에 관한것으로는

- 적정한 住宅의 規模에 대하여
- 住宅의 計劃에 대하여
- 住宅의 設備에 대하여
- 庭園과 Veranda에 대하여
- 日照와 바람의 소통에 대하여

隣棟간격 등을 細分하여서 調査檢討를 하고 分析을하여서 決定의 方向性을 調整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近隣環境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 周辺道路의 安全性에 대하여
- 騒音관계에 대하여
- 住宅周辺の 차분한環境의 여부
- 集團住居의 景觀과 整頓에 대하여
- 풍부한 綠陰에 대하여
-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 가벼운 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 隣近住民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에 대하여

등을 細分하여 近隣狀況에 대한 評價因子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할수있게 誘導하여 가는 것이다.

또한 生活施設과 利便性에 대하여는

- 医療施設狀況
- 教育施設狀況
- 文化福祉施設狀況
- 日常用品구입의 容易性에 대하여
- 团地内の 交通의 利便性에 대하여
- 通勤할수있는 交通의 利便性에 대하여

등도 細密하게 分析을 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細分事項의 分析을 통하여

住戶内の 居住性과 生活의 施設, 日常生活과 交通의 利便性, 相隣環境, Open space, 그리고 住宅地의 image등의 6개의 因子를 가지고 綜合的인 評價를 통하여 開發의 方向性을 가지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住宅問題는 住宅의 量的인 不足에 대하여는 이미 解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1973年度의 住宅難世帯가 8.5%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統計的인 数字를 통하여 보아도 알수있는 바와같이 住宅不足에 대하여는 神經을 쓰지 않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여기에 日本의 住宅問題는 住宅의 質的인 向上과 居住環境의 水準을 높이고져 하는데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개의 New town의 開發事業도 이러한 두개의 課題를 充足시키려고 하는데에 意義를 가진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 韓國의 立場은 住宅의 不足率을 打開시키면서 住居의 質的인 向上과 居住環境의 水準向上을 圖謀해야하는 過重한 課題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일행은 見學을 마치고 일단 奈良에서 해산을 하고 각자 개인행동을 하면서 東京으로 갈 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필자도 혼자 近鉄京都線의 전철을 타고 京都로 向하였던 것이다. 京都駅에 도착하여보니 吉阪先生과 몇몇분들이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吉阪先生일행과 合流하여 鴨川의 川邊에서 시원한 바람을 안고서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談笑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저녁을 마치고 京都市内の 特有한 골목길과 住居環境의 特殊性에 대한 例를 說明들을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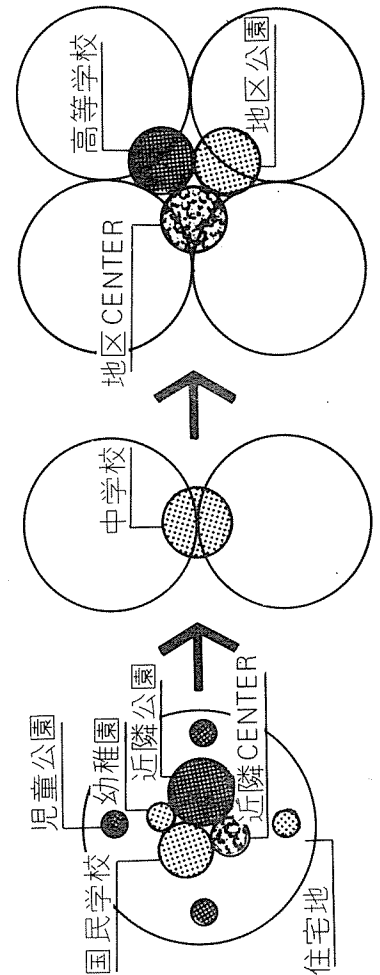


그림-9. 平城 N. T. 의 住宅構成의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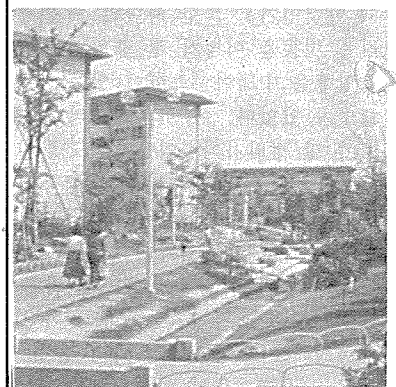


그림-10. 平城 N. T. 의 아파트团地